강진군, 2023 강진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성료

강진군은 최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3 강진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의전 중심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군정 보고를 PPT로 진행하고 주민 숙원 사업의 사전 접수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정에 녹여 넣기 위한 민선 8기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영상 촬영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총 78건의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사전에 접수해 4개 권역별(▲작천, 병영, 옴천 ▲도암, 신전, 성전 ▲칠량, 대구, 마량▲강진읍, 군동)로 나눠 사전 편집을 거쳐 제작됐다.

특히,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읍면 순회 방식에서 전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 각 읍면 상황 및 시급한 건의 사항을 전 군민이 공유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군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지루하기 쉬운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는 깨알 재미도 선보였다. 군청 소속 주무관의 1부와 2부를 나누는 5분 공연으로 집중도와 재미를 모두 잡았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78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됐으며, 모든 건의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한 후 예산 확보해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처리상황은 소요 사업비, 시기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건의자에게 전달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희망사항, 애로사항 등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옥 기자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의전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해, 군정 보고를 PPT로 진행하고 주민 숙원 사업의 사전 접수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정에 녹여 넣기 위한 민선 8기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강진군 제공

함평군,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함평군이 2023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이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송효근 국장이 강사로 나서 각종 작업 시 사고·사례 등 안전사고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사업의 특성상 미숙련자와 고령자가 많은 만큼 각종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지역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목포시,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

목포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목포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2023년에도 이어간다.

시는 올해 법정문화도시 지정 2년차를 맞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지난 2020년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거쳐 2021년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5년간 198억원의 사업비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된 목포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 증대 및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문화도시위원회, 문화도시자문위원회, 문화통장 등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

국·도·시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갯물학교, 생활장인대학 등 지역문화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고, 꼼지락실험실 2개소 운영, 문화교류탐험대 등 시민들의 문화 참여와 향유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모두 2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문체부 우수도시 선정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 목포시는 2023년 2년차 사업에서는 '도시를 잇다,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2023년에는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치유사업과 미래문화준비단, 문화도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포만의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토속문화 리메이크, 목포문화디지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박성태 기자

2023 찾아가고 싶은 봄 섬, '신안 퍼플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3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에 퍼플섬이 선정됐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5곳은 아름다운 꽃과 트레킹을 테마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했으며,

신안군에서는 '퍼플섬'이 라벤더 '꽃'과 섬과 섬을 잇는 보행교 트레킹 '퍼플브릿지'를 테마로 가고 싶은 섬으로 추천받았다.

퍼플섬은 한 번에 3개의 섬을 걸어 여행할 수 있는 이색 명소로 마을 지붕부터 도로, 휴지통,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섬이다.

봄에 피는 라벤더 꽃에 이어 버들마편초꽃과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꽃이 만개해 4계절 꽃향기로 가득한 섬이며 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관광의 별이다.

5월 중에는 섬 라벤더 꽃 축제가 개최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로 퍼플섬 이외에도 튤립과 홍매화로 빛나는 임자도, 수선화 꽃으로 가득찬 선도 등 다양한 섬들에서 꽃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장홍근 기자

무안군,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을 4월 10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지붕, 건축 연도, 이용 상황 및 도로 조건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군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검증된 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주택가격(안)은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재 기자

영암군, 장작가마 체험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은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영암요(장작가마) 소성체험을 진행하며, 4월 7일 오후 2시 출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작가마 소성은 국가사적 제338호 구림도기가마터 출토 재현품과 응용개발품 등 작품도기를 제작해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림도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이다.

이번 영암요 작품은 요변으로 인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도기애호가의 많은 관심이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유료)으로 운영 예정인 '월출의 달을 굽다'를 비롯해 축제기간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작가마 불멍', '소원성취 장작 태우기'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김기철 기자